

# 조선시대 반가에 나타난 영역성과 사밀성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

## Meanings and Expressions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심은주\* / Shim, Eun-Ju  
권영걸\*\* / Kwon, Young-Gull

### Abstract

Territoriality and privacy are known to be basic human instincts that have made today's cultural evolution possible. However there are also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s and meanings of territorial and privacy behaviors. Currently with the emerge of non-territorial workplaces office workers are deprived from what used to be their territory and force to share with co-workers leading confusion and stress. Therefore many research has be conducted on territorial issues but unfortunately little is known on Korean cultural concept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Even though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westernized during the 20th century, traditional culture still is a major influence on Korean's concept and use of space. This study explores and investigates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and privacy and how they are expressed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focused on high level society between 17th and 19th century. Thus hope make a small contribution in designing unique and culture based interior spaces.

키워드 : 전통성, 주거공간, 영역성, 프라이버시  
Keywords : territoriality, privacy, housi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70년대 건축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한 때 활발히 연구 되었다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의 탈영역적 사무공간으로 확산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영역성(territoriality)과 사밀성(privacy)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인 동시에 개인 특성이나 속한 문화에 따라 시각과 표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교적 시각적 사밀성에 관대한 편이라 다른 사람이 집 또는 사무실 문지방에 서서 얘기하는 것을 영역의 침범이라 생각하지 않는 편인 반면독일인들은 상대적으로 영역성에 엄격한 편이어서 시각적 침범만으로도 개인영역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며 개인 영역 내에서의 통제 욕구도 높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본인의 가구들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서양문화권과는 달리 주거 공간 내에서 드레스 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sup>1)</sup> 그러

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 문화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동양문화권에서의 영역성과 사밀성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편이다.

빠른 속도로 서구화 과정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 공간 문화와 단절된 상태로 서양식 공간 문화가 그대로 적용되어왔으나 최근 전통공간에 대한 고찰 및 적용방법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조형적이고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공간 개념에 대한 연구와 적용법에 대한 모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 주거 공간에 나타난 영역성과 사밀성의 의미, 특성,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우리 문화에 맞는 영역성과 사밀성 개념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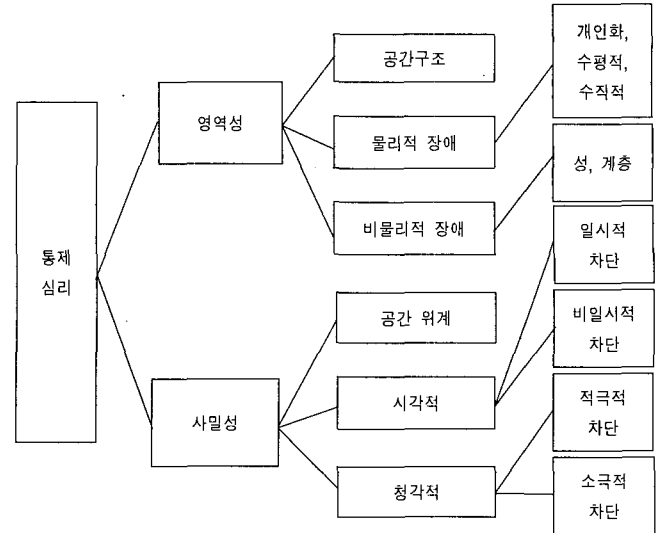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영역성과 사밀성의 개념 및 대응방식은 문화와 개인에 따라 그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으나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공통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 정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정교수

1)Hall, Edward, The Hidden Dimension, Anchor Books, New York, 1966, p.133, p.137.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영역성과 사밀성의 개념, 특성, 그리고 각종 강화 장치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은 분석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의 범위는 1700년에서 1900년대 초 까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중부형 가옥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경제 능력과 신분의 이점으로 비교적 물리적 공간 구축이 수월하고 그 시대의 지배적 이념 반영이 강하게 나타나는 양반가옥들 가운데 현지답사와 이미지 정보 수집이 용이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공간들과 평면구조 유형별로 하나씩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영역적 특성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랑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단, 영역성 강화장치 가운데 하나인 개인화 현상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중부형인 추사고택을 추가하였다.



<그림 1> 연구 전개를 위한 분석틀

## 2. 영역성과 사밀성

### 2.1. 인간의 통제 심리 (Control Theory)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의 심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인간만이 지니는 문명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며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제 능력의 상실은 개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인간 통제의 심리는 밀집 현상(crowding), 통솔력, 교육, 표현 능력,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등과 같은 분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어 왔다.

프리드만과 라케이(Friedman & Lackey)는 통제 심리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 도구의 개발과 사용으로 환경에 순응하기 보다는 개발하고 개척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한다<sup>2)</sup>.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제 심리를 '우월성에 대한 욕구'라는 개념으로 최초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을 자기보다 더 강하고 능력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해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관점이 상대적 경쟁관계 속에서 통제 심리를 이해하고자 했다면 화이트(White)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속적 도전이라 할 수 있는 통제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개인의 만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통제 심리란 두 가지 이상의 여건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데 환경적 통제(environmental control)와 인식적 통제(cognitive control)로 구분된다. 전자는

상황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개인 선택권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이 갖고 있다고 믿는 선택권의 정도라 할 수 있다. 글래스와 싱어(Glass & Singer)는 실험을 통하여 소음이 심한 환경 안에서 본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정신과민 현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sup>5)</sup>

인간 통제에는 행위적, 인지적, 그리고 결정적 조절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행위적 통제이란 커다란 소리를 작게 줄이거나 아예 꺼버릴 수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행위적 반응을 의미하며 인지적 통제는 인간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이 본인에게 해롭지 않다고 인지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결정적 통제는 소음이 적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한다.<sup>6)</sup>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심한 정신과민 현상이 동반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 또는 단체 안에서 영역적 확립이 확고한 경우는 분쟁이나 다툼이 적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동질성을 지닌 단체의 경우에도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통제의 범위 및 한계의 모호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통제 심리의 욕구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의 사밀성과 영역성에 대한 욕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2.2. 영역성의 개념과 특성

영역이란 방어적 적대행위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동원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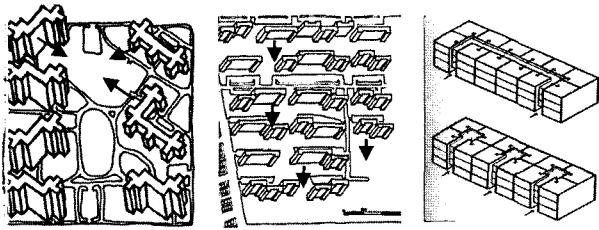
2)Friedman, M.I.& Lackey, G.H., The psychology of human control, Praeger Publishers, 1991, p.31.

3)Adler, A., Individual psychology: Murchinson (Ed.), Psychologies of 1930. Clark University Press, 1930, p.80.

4)White, R.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sts, 39, pp.956-958.

5)Glass, D. & Singer, J., Urban stress, Academic Press, New York, 1972, pp.33-45.

6)Averill, J. R., Per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y Bulletin, 80, 1973, p.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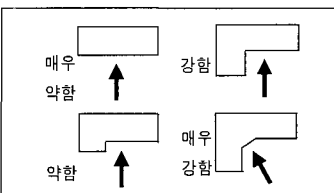
<그림 2> 관찰 가능성과 영역성

<그림 3> 공간 분절과 영역성 강화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며<sup>7)</sup>, 영역성이란 개인공간과 달리 가시적이고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일정한 영역의 방어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통제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자기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일정한 시간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영역성에는 일반적으로 통제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영역은 개인 주거공간과 같이 강력한 통제와 개인화가 가능한 소수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교실과 같이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가능한 곳은 2차 영역, 그리고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3차 영역에는 공원이나 해변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8)</sup>

영역성의 기능에는 우선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일상성의 기능이 있으며 영역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위계 또는 우열을 상징하는 사회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정체성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성 강화와 방어를 위해 사람들은 다음의 3가지 방식에 의해 의식 그리고 무의식 행위를 취하게 된다. 첫째는 장애의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담이나 단차로 영역을 강화하거나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 좋아하는 그림, 문구 등을 영역 주변에 장식하여 가치관, 종교 등을 포함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리적 장애 장치 또는 사회적 지위나 인종 등과 같은 비물리적 장애 장치가 존재한다.<sup>9)</sup>

둘째는 <그림 2><sup>10)</sup>와 <그림 4><sup>11)</sup>에서 보이듯이 공간 구조의 조작을 통하여 주민 또는 주인의 시각 관찰과 통제 능력을 증



<그림 4> 공간 구조와 영역성의 관계

가시킴으로써 영역 방어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예로 일자형, 7자형, ㄷ자형, 그리고 ㄱ자형의 순으로 진행되거나 하나의 공간을 다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해 질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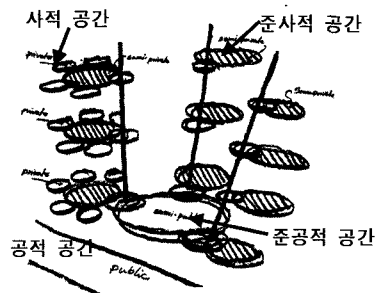
영역성 구축은 강화되어 범죄율도 낮아진다. 셋째는 공간의 분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림 3><sup>12)</sup>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공간 단위가 세분화될수록 영역의 통제력이 용이하게 되어 영역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 2.3. 사밀성의 개념과 특성

영역성이 공간 개념을 담고 있다면 사밀성이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권리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그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 두가지 개념은 우리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만큼 비슷한 특성들이 존재한다. 사밀성이란 공공성(public)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각 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거공간의 밀집화 현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내외에 있어서 사밀성 침해는 매우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밀성을 지속 또는 쟁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근본 심리에서 영역 행태가 출발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알트만(Altman)은 영역성을 사밀성의 연관 또는 하위 체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영역성과 사밀성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회맥락 속에서 개인과 타자에 대한 관계로서 사밀성을 살펴보면 크게는 <그림 6>에서 보이듯이 선택된 타인으로부터도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비개방형(Nondisclosure)과 선택된 타인에게는 자신을 개방하는 자기 개방형(self-disclosure) 구조 모형이 존재한다.<sup>13)</sup> 또한 외부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공적(public), 준공적(semi-public), 준사적(semi-private), 사적(private) 등의 위계질서를 가지며, 일반적인 서양식 주거 공간 내에는 침실과 같이 사밀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적 공간과 거실이나 부엌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준사적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

사밀성은 시각적, 청각적 사밀성으로 구분되는데 시각적 사밀성은 주거 공간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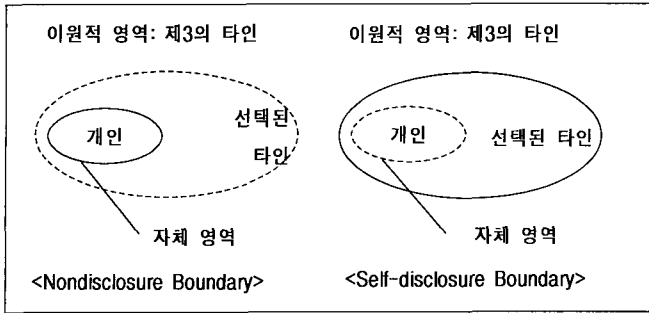


<그림 5> 프라이버시 위계와 공간구조

강화하기 위해 1차 또는 2차 해결 방법이 있다. 우선 1차 해결 방법으로는 시각 침범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들로 설계구조 측면에서 창의 위치를 다른 집들과 직접적으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창의 높

7)Dyson-Hudson, R. & Smith, E.A., Human territoriality: an ecological assessment. American Anthropologist, 80, p.22.  
 8)Fisher, J., Bell, P. & Baum A., 이진환 · 홀기원 · 정영숙(공역), 환경심리학, 학지사, 서울, 1997, p.247.  
 9)Fisher, J., Bell, P. & Baum A., 위와 동일, pp.254-259.  
 10)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3, p.84.  
 11)Oscar Newman, 위와 동일, p.54, p.57.

12)Oscar Newman, 위와 동일, p.71.  
 13)Derlega V. & Chaikin A., Privacy and self-disclosure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1977, pp.102-115.



<그림 6> 타자와 사회관계 속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모형

이나 크기를 고려하여 계획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sup>14)</sup> 이에 반해 2차 해결 방법은 일시성, 이동성, 또는 가변성의 특성을 지니는데 투명도가 낮은 소재를 사용하거나 커튼, 루버, 또는 화초들과 같은 조절 장치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주거인의 통제력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로서 시각적인 것에 비해 가시적인 면이 덜하여서 간혹 간과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음은 볼륨, 예측도, 그리고 인지적 통제의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며 각 특성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불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우선 볼륨의 경우 일반적으로 91 dB이 넘으면 매우 시끄럽다고 인지되며 특이한 것은 30 dB 이하로 낮아져서 지나치게 조용해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증가된다고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소음일수록,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소음일수록 정신과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소음에 대한 개인의 조절은 환경 만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소음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과민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sup>16)</sup>

청각적 사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극적 통제와 적극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통제는 우선 소음 원천으로부터 피하는 방법과 카펫 등과 같이 실내 공간에서 흡음재를 많이 사용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적극적 통제에는 파티션이나 화분 등과 같이 장애를 설치하거나 공간 자체에 작은 부스나 세부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들<sup>17)</sup> 혹은 백색 소리와 같은 배경음을 넣어 줌으로서 소음을 마스킹(masking)하는 방식도 있다.<sup>18)</sup>

14)C. Marcus & W. Sarkissian,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p.46-48.

15)Miller S. & Schlitt J. Interior Space, Praeger Publishers NY, 1985, pp.40-45.

16)Fisher, J., Bell, P. & Baum A., 위와 동일 p.111.

17)Miller S. & Schlitt J. Interior Space, Praeger Publishers NY, 1985, pp.40-45.

18)Fisher, J., Bell, P. & Baum A., 위와 동일 pp.115-116.

<표 1> 공간 구조에 따른 영역성

공간 구조 배치와 분절		
분리형 (경남 밀양읍 교동, 손병문씨)		분리된 □자와 ㄷ자형의 건물 구조와 함께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중사랑마당 등 세분화된 영역들로 이루어져 거주자의 매우 강한 통제가 가능하다.
□ 자형 (경북 안동군 양진당)		ㄷ자형의 건물 두 채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구조로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비교적 강한 통제가 가능하다.
별동형·직교형 (경남 거창군 응양면 동호리, 이응진)		사랑채는 주택의 주 출입구와 안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며 안채는 이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통제가 가능한 중간 정도의 영역성 가진다.
별동형·직렬형 (전남 화순 도곡면 월곡리, 양동호씨)		사랑채와 안채가 모두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이며 각 채에서 집안 전체의 시각적 감시가 어려워 영역성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별동형·병렬형 (경남 밀양읍 산외면 다죽리, 손기운씨)		사랑채와 안채가 외부 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특히 안마당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구조들에 비해 약한 영역성을 지닌다.

### 3. 조선시대 반가의 영역성 표현 방식

#### 3.1. 공간 구조와 분절

인간의 1차 영역인 주거 공간은 개인 또는 집단의 영역성과 사밀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간으로서 이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장치들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그 가운데 공간 구조의 배치와 분절은 영역성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교 덕목이 생활기준의 일차 규범으로 존재했던 조선

시대에서 주거 공간 특히 반가의 공간은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사회 또는 가정 내에서의 위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거 공간의 영역성은 행랑채, 안채, 사랑채, 그리고 사당 등으로 그 영역이 매우 엄격하게 구분되어 왔다. 이 가운데 사랑채는 주거내에서 사회성을 지닌 남성의 공간으로서 조선 초기에 비해 후기에 와서 유교 문화의 강화로 보다 확장되어 왔다고 추정된다.<sup>19)</sup> 이는 사적인 주거 공간 내에서 공공성이 도입된 공간으로 집 안팎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기단을 높이 세워 집안의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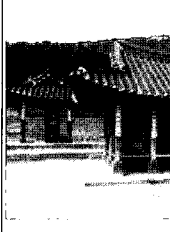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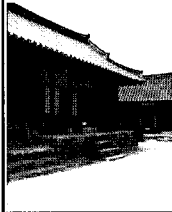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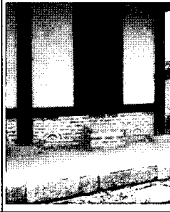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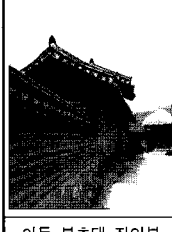

이와 상대적으로 여성 영역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마찬가지로 축소되고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서양의 주거 양식과 달리 여러 동의 채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구조 또한 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마당에는 보다 독립적인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그리고 그 영역적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행랑 마당이나 작업 마당 등으로 세분화된다. 채의 경우 주거의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역할로서 마당과의 관계성에 측면에서는 별동형, ㅁ 자형, 그리고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랑채와 안채의 위치에 따라 직렬형, 병렬형, 그리고 직교형 등이 있다. 영역성 강화의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위 <표 1>과 같이 같은 ㄷ 자형의 공간이라도 벽과 문으로 영역을 분절한 경우 가장 명확한 영역성의 구축을 보이며, 일자형의 경우에는 공간이 분절되지 않아 시야가 확산, 분산되는 병렬형 구조가 직교형이나 직렬형에 비해 영역성 측면에서는 더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 3.2. 장애 장치(Barrier)

영역 방어를 위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장애와 비물리적 장애를 동원하곤 한다. 물리적 장애는 다시 잠금 장치와 같은 실제적 장애와 담이나 개인화 등과 같은 상징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반가의 공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물리적 장애는 성의 유별이라 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생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때로는 문이나 담과 같은 상징적 장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사랑방의 높은 기단부 등과 같은 상징적 장애를 통해 표현되어 왔다.

반가의 공간에서 장애 장치는 잠금과 같은 실제적 장치보다는 상징적 장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종류는 크게 개인화, 단차, 지붕, 그리고 담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사

<표 2> 영역성 강화를 위한 상징적 장애 장치

상징적 장애 장치 (Symbolic Barrier)			
개인화	 안동 남촌댁 대문	 예산 추사고택	주출입구에 놓인 문패나 주련 등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치장을 하는 것 이상으로 주거인의 정체성 표현을 통한 영역표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
단차	 안동 북촌댁 중문	 안동 북촌댁 사랑채	기단의 높이는 그 위에 지어진 채를 사용하는 주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집안에서의 상징성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진다.
지붕	 안동 북촌댁 별당채 뒷편	 안동 북촌댁 대문	지붕은 입구를 강하게 상징하는 표현 방법이며 때로는 벽의 수직적 요소를 수평적 공간으로 확장시켜 영역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담	 안동 북촌댁 진입부	 안동 북촌댁 사당 입구	담은 영역 표현 장치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높이에 따라 방어를 상징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시각적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를 차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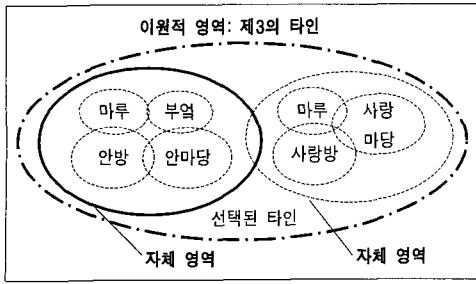
람들로부터 주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인화 현상은 문패와 같은 직접장치 이외에 족자와 같이 장식적으로 표현되는 간접장치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곳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치로 단차와 지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지붕은 수직 요소가 강한 벽을 수평 공간으로 확장시키면서 영역 확장 상징체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영역성의 구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징적 장애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았다.

## 4. 조선시대 반가의 사밀성 표현 방식

### 4.1. 공간의 위계

우리 말 가운데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란 쉽지

19) 주남철 외,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p.84.  
20) 본 사례 분석의 대상 도면들은 다음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노정희, 조선반가의 주거문화 고찰과 공간분석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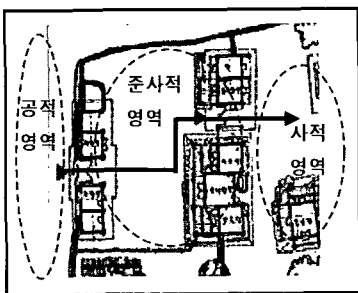


<그림 7> 반가에 나타난 이중구조의 사회관계성 모형

하 속에서 발전되지 못한 것도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주거 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 집약형이며 대칭형의 구조를 지닌 서양 주거공간에 비해 마루 또는 마당이라는 수평의 완충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비대칭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기의 방 서로 시선이 마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장치 없이도 사밀성 보호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전통 주거 공간의 경우를 보면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주거 공간 내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각기 다른 사회관계성의 이중적 모형을 보여준다. 사랑채의 경우는 주거 공간이라는 1차 영역 내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업무공간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자기 개방형의 구조를 가지는 반면 안채는 외부로부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채로부터도 폐쇄된 비개방형 구조를 가진다.

또한 <표 3>은 공간의 내외부성과 사회관계성에 의해 사성의 위계를 표현하였는데 서양의 주거공간과는 달리 사적 공간과 준사적 공간이 다양한 위계와 성격으로 나뉘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크게는 사회 관계 차원에서 여성의 영역이자 비개방형이라 할 수 있는 사성이 강조된 안채와 남성의 영역으로서 사적이면서도 공공성을 담고 있는 사랑채로 나뉘어 있으며 각 채 안에서도 또 다시 내부공간인 사적 공간들과 외부 공간인 준사적 공간들로 세분화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같은 실내공간 구조를 지녔으나 공간배치나 성격상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사랑방과 달리 전체 공간 가운데 가장 깊숙이 배치되고 1차, 2차 강화 장치가 모두 표현되고 있어서 안방(PR)은 사밀성이 가장 강조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그림 8>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공간 구조(표3의 직교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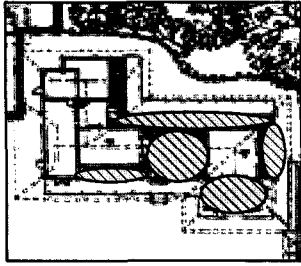
않다. 사밀성으로도 표현되는 프라이버시 개념 자체가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서양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 우리 문

명의 반가들의 경우 준사적인공간들이 S.PR 1, (준사적 공간 1)부터 가장 공격적인 S.PR 7 (준사적 공간 7)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외 공간인 안채의 마당이나 마루는 사랑마당(S.PR5)에 비하면 외부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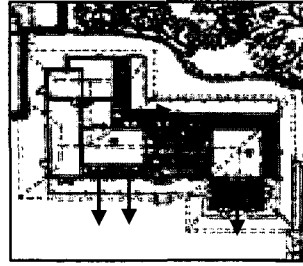
<표 3> 공간 구조와 프라이버시

공간의 구조와 프라이버시		
분리형 (경남 밀양읍 교동, 손병문씨)		외부와 바로 연결되며 주거 내의 또 다른 외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준사적 공간들을 여러개 배치하여 사랑채에 공격성향이 강한 사랑채의 사밀성까지도 강화하고 있다.
□ 자형 (경북 안동군 양진당)		시선들이 서로 어긋나게 방과 입구를 배치하여 □자 구조에서 발생되기 쉬운 시각적 침범을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안채의 사밀성이 강하게 확보되고 있다.
별동형: 직교형 (경남 거창군 응양면 동호리, 이용진)		대문과 중문을 일직선 상에서 비켜서 배치하여 안채의 사밀성 강화하고 있다.
별동형: 병렬형 (경남 밀양읍 산외면 다죽리, 손기운씨)		안채의 사밀성 보호를 위해 구조적인 해결방법 보다는 나무 등과 같은 2차적인 해결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별동형: 직렬형 (전남 화순 도곡면 월곡리, 양동호씨)		외부인들에 대한 안채의 사밀성 보호는 있으나 사랑채와는 서로 마주 보도록 설계되어 다른 구조를 비해 내부인 사이에서는 개방된 구조 경향을 보인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공간 분절에 의한 비개방형 영역내에 있어서 내부공간인 사랑방(S.PR4)보다도 오히려 사밀성이 강한 성향을 보인다.



<그림 9> 청각적 사밀성 보호를 위한 공간 구조 (표3의 분리형 사례)



<그림 10> 시각적 사밀성을 위한 1차적 차단방법 (표3의 분리형 사례)

## 4.2. 사밀성 보호 장치

한국의 전통 주거 공간을 보면 시각적 침범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서 발이나 나무 등과 같은 2차 차단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구조적이고 비교적 영구적인 1차적 해결방법들이 강하게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을 보면 영역성과 사밀성의 보호를 위해 중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문이 열렸을 때 외부에서 안채가 보이는 것조차 방지하기 위해 대문과 중문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동형이 아닌 다른 구조들에서도 가능한 창이나 문이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비대칭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부와 타로 연결되는 사랑채의 경우 강한 영역 상징체로서도 기단을 높였으나 시각적 사밀성 보호를 위한 2차 해결 방법으로도 단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반가의 공간 내에서는 시각적 사밀성 보호를 위해 수평과 수직 차단 방법이 동시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전통 주거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통제장치 방법 가운데 하나인 목재, 종이, 천 등과 같은 흡음재 등을 많이 사용되었으나 벽이라는 강력한 청각적 사밀성 장치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실과 실 사이에 완충지역을 둠으로써 소음에 대한 적극적 통제장치들을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반가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에 내재된 영역성과 프라이버시의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본 연구의 주제는 사람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태의 직접 관찰 방법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분석 대상의 시대적 특성상 공간 외피에 대한 분석과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가공간에 나타나는 영역성 강화의 첫 번째 수단은 공간의 구조적 분절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개의 독립된 채로 분절하여 공간의 관찰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분리형의 경우 안채와 사랑채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또한 세분화된 여러 개의 마당들을 지

닌 구조가 매우 강한 영역적 구축과 함께 사밀성 보호를 가능케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직렬형 구조는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약한 영역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에게 마주보도록 연계되어 있어서 사밀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영역성 강화의 수단은 개인화, 담, 단차, 그리고 지붕 등과 같은 상징적 장애라 할 수 있는데 공간 외피에 있어서는 잠금 장치와 같은 실제적 장애 장치들에 단의 차이나 지붕 등을 이용한 상징적 장애들은 더 많이 표현되어 있다.

둘째, 사밀성의 경우 사랑채와 안채가 하나의 주거 공간 속에서 사회관계성의 이중적인 구조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밀성의 위계가 일반적으로 공간 내외부와의 관계보다는 각 채의 관계 속에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서양의 주거 공간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제 및 조절이 강조되는 사밀성 보호 장치들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공간 속에 내재된 영구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사료된다. 시각적 사밀성은 서양과 같은 일시성과 이동성을 지닌 2차 해결방법들 보다는 1차 해결방법들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청각적 사밀성 또한 소극적 차단보다는 적극적 차단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 참고문헌

1. Adler, A., Individual psychology: Murchinson (Ed.), Psychologies of 1930. Clark University Press, 1930.
2. Altman, I.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Monterey CA: Brooks/Cole. 1975.
3. Averill, J. R., Per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y Bulletin, 80, 1973.
4. Derlega V. & Chaikin A., Privacy and self-disclosure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1977.
5. Dyson-Hudson, R. & Smith, E.A., Human territoriality: an ecological assessment. American Anthropologist, 80.
6. Edney J. & Buda, M., Distinguishing Territoriality and Privacy: Two Studies, Human Ecology, Vol.4, No 4, 1976.
7. Edward H., The Hidden Dimension, Anchor Books, New York, 1966
8. Fisher, J., Bell, P. & Baum A., 이진환·홍기원·정영숙(공역), 환경심리학, 학지사, 서울, 1997.
9. Friedman, M.I. & Lackey, G.H., The psychology of human control, Praeger Publishers, 1991.
10. Glass, D. & Singer, J., Urban stress, Academic Press, New York, 1972.
11. Marcus C. & Sarkissian W.,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12. Miller S. & Schlitt J. Interior Space, Praeger Publishers NY, 1985.
13. Newman O., Defensible space,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3.
14. White, R.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sts, 1959, 39.
15. 노경희, 조선반가의 주거문화 고찰과 공간분석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6. 주남철 외,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7.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접수 : 2005. 8. 31>